

# ‘공황기’ 반식민진영의 ‘지식계급’론\*

최 규 진\*\*

- I. 머리말
- II. 계급과 지식인
- III. 공황기의 변혁론과 계급론
- IV. 공황기 지식계급론과 자아 인식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사회주의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1920년대는 사상사 차원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1920년대에 사회주의 보급과 함께 계급론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사회주의진영은 노동자·농민계급을 축으로 삼는 반(反)식민의 변혁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임무를 새롭게 설정하려 했다. ‘지식계급’이라는 말이 성립되는가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었다.

이 글은 계급론 가운데 지식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그러나 계급론에 미친 정세관의 효과, 계급구조와 계급의식 사이의 긴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을 계급론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인텔리겐치야’라는 신어(新語)를 눈여겨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5234).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보아야 한다.

이 글은 공황기에 반식민진영, 특히 사회주의 지식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으며, 민족해방운동에서 인텔리겐치아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려 했는지를 다룰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 몰아닥친 공황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인이 더욱 민감했다. 공황의 효과로 지식인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공황기의 지식인은 ‘메이크업한 근대’를 향유하는 지식인이거나 ‘허무적 지식계급’, 또는 노동자계급과 함께하는 ‘동반자 지식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동반자 지식인’은 1920년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조정해야 했다. 그들은 ‘흰 손의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주의적인 지식인이 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개량주의 소부르주아적 지식인에 대한 사상투쟁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일제의 사상탄압이 심해지고 정세가 바뀌면서 지식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 • 주제어

공황기, 계급론, 지식계급, 인텔리겐치아, 사회주의운동

## I. 머리말

제1차 세계대전은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을 앞뒤로 나타난 개조론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드러난 근대문명의 폐해를 응시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한 논의였다.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개조론의 여러 사조, 특히 문화주의, 데모크라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sup>1)</sup> 반식민진영의 저항이념을 주도했던 것은 사회주의였다. 민족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세계가 사회주의로 기울게 된 심리적 계기가 1910년대에 형성되었지만,<sup>2)</sup> 3·1운동을 지난 뒤에 “선진 여러 나라가 6, 70년 동안 이룩한 것을 5, 6년 만에 압축하는”<sup>3)</sup> 발전을 이루었다. 사회주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20년대는 사상사 차원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1920년대 초 잡지에서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는 『공산당 선언』 구절을 곳곳에서 인용했다. 사회주의 지식인은 계급 프레임으로 식민지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계급이라는 용어를 두루 응용해서 여러 담론을 생산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생산한 민족 담론도 어떻게든 사회주의 계급론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은 계급 개념이 구성되는 인식론적 과정을 추적하면서 ‘지식계급’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핀다. 계급론에 미친 정세관의 효과, 계급구조와 계급의식 사이의 긴장, 비합법운동가와 학술문화운동진영의 인식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계급론과 변혁론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급분석은 불평등한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작동하는

- 
- 1)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2009, 40쪽.
  - 2) 임경석, 「20세기 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신지식층의 대응- 사회주의 지식인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43, 2003, 22쪽.
  - 3) 「主義의 싸움이나 勢力的의 싸움이나, 根本으로 問題되는 主義者의 試練不足」, 『개벽』 58호, 1925, 2쪽.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계급구분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 자체가 이미 변혁론을 내포한다.

식민지시대 계급론을 점검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의 지형을 한꺼번에 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글은 1920~1935년까지의 계급론 전개 과정을 시야에 넣되, ‘공황기’를 중심에 놓고 앞 뒤 시기를 비교할 것이다. 공황기는 또 다른 운동의 전환점이었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서 그 영향을 미쳐 헤아리기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뒤 서구에서 확립되었던 정치·경제 질서를 뒤흔들었다. ‘사회주의 조국’ 소련은 일국사회주의로 나가는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또 세계 사회주의운동은 1928년 코민테른 6차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 식민지 조선도 세계정세에 직접 영향 받았다.

이 글은 공황기에 반식민진영, 특히 사회주의 지식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으며 민족해방운동에서 인텔리겐치아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려 했는지를 다룰 것이다. 1920년대 지식인과 공황기 지식인은 존재와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식인이 자기를 정의하는 두 글을 서로 견주어보자. 먼저 1920년대 중반을 회고한 글이다.

그때 우리 뜻은 장하였소. 조석을 굶다시피 하면서도 다 헤어진 우리 양복 속에서는 금박될 만한 사회변혁의 논문이 나오고 혁명가가 나오고 무슨 비장한 결의문이 나왔소. 그리고 우리 동지가 셋이나 다섯이나 몇 사람 모아 앉으면 천하를 논하는 그 대세, 참말 그때 우리 회관은 제3 인턴내셔널 회장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혁명위원도 되고 국회도 되고 무슨 군단(軍團)도 되고 병참부도 되고 곱베다짐 상포(商舖)인 공동소비조합도 되었소.<sup>4)</sup>

이 회고 글에 따르면, 혁명적 지식인은 변혁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다.

4) 李亮, 「時代手筆」, 『비판』 제1권 제1호, 145쪽.

그러나 다음 글은 지식인 스스로 자기 존재 방식을 벗어나야 할 그 어떤 자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계급운동을 향하여 책사라는 칭호를 봉정하는 것은 결코 명예적의 그것이 아니라 치욕적의 그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라? 현대의 “모든 인류는 노동으로 돌아가자!”는 계급운동의 적은 먼저 손이 하얀 책사 배를 매장코자 함이다.<sup>5)</sup>

“손이 하얀 책사가 아닌 계급운동자가 되어 노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주장 속에서 1920년대 지식인의 존재 양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급운동자’가 되려는 혁명적 지식인의 태도이다. 지식인 일반의 모습은 어떠했고, 민족해방운동에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지식인의 계급적 자아인식을 점검하고 ‘지식계급’론의 전개과정을 살필 것이다.

## II. 계급과 지식인

계급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여러 잡지에 신술어(新術語)로 계급을 설정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계급이란 경제적·정치적 이해의 공통에 의하여 결합하는 집단”이라는 규정이 많다.<sup>6)</sup> 신분과 계급은 어떻게 다른가. “계급이란 생산과정에 대한 역할에 의하여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5) 김약수, 「사회운동자의 이 모양, 저 모양을駁함」, 『비판』 제2권 제7호, 1931, 82~84쪽.

6) 편집실, 「술어해설 - 착취, 계급」, 『농민』 제3권 제4호, 1932, 18~19쪽; 김문준, 「익숙한 말 섣투른 말(3)」, 『勞働運動』 1권 5호, 1927, 11~12쪽; 圖現, 「常識辭典」, 『新人間』 16호, 1927, 22쪽.

에 의하여 분류되는 인간의 범주이다. 신분이란 법제적·법률적 사회 질서에 대한 공통의 지위에 의해 결합된 인간이다.”<sup>7)</sup> 그렇다면 빈부격차와 계급은 어떻게 다른가. 계급 개념을 해설하는 다음 글을 보자.

옛날 신분적 계급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회계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표면상 나타나는 수입 분배의 차(差)를 따라 계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관계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착취와 피착취관계를 말한 것이다.<sup>8)</sup>

이처럼 수입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 계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 속에서 계급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sup>9)</sup>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이해의 동일성을 기초로 하고 결합된 사회적 집단”<sup>10)</sup>이라는 설명이 또 다른 보기이다. 그러나 천도교 잡지인 『조선농민』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유산계급(有産階級)이라 하고, 돈 없이 노동하는 사람을 무산(無産)계급이라 하고, 글자 아는 사람을 지식(智識)계급이라고 한다.”<sup>11)</sup>고 규정하여 사회주의진영과는 다른 계급론을 보여준다. 이런 ‘이단의 계급론’에 대해서 『조선지광』에서는 레닌의 계급론을 인용하여 빈부의 차별로 계급을 분류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잡지에서 인용한 레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급은 사회적 생산조직 중에 그 사람들이 점유해있는 지위에 의하여,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계, 이들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를 향유하는 방법과 분량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는 인간의 큰 집단이다(레닌, 저작집 제5권 1권 「위대한 창의」).<sup>12)</sup>

7) 권생, 「계급론」, 『조선지광』 80호, 1928, 33쪽.

8) 東方學人, 「社會科學用語問答」, 『東方評論』 1, 東方評論社, 1932, 60쪽.

9) 編輯室, 「術語解説」, 『農民』 제3권 제4호, 1932, 19쪽.

10) 青年朝鮮社, 『新語辭典』, 1934, 5쪽.

11) 編輯部, 「術語辭典」, 『朝鮮農民』 2권 2호, 1926, 29쪽.

또 『조선지광』에서는 계급이 발생하는 원인을 엥겔스가 쓴 『공상에서 과학으로』를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복자-피정복자, 지배자-피지배자의 관계에서 구한다. 그러나 계급발생의 원인은 사회적 생산력 때문이다.”고 했다. 이처럼 사회주의자들이 계급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계급 분석에 힘을 쏟았던 까닭은 “계급투쟁이 역사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계급투쟁의 주체가 성립하려면, 노동자가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나아가야 했다.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에 대해서 『조선지광』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계급이익의 대립이 있다고 곧장 계급투쟁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이 대립하여 존재하는 것, 그 계급이 의식을 가졌다는 것, 계급투쟁을 행한다는 것을 혼합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는 다만 객관적 존재로서 계급과 다시 말하면 아직 자신을 계급으로 의식하지 못한 계급과 이미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의식한 계급을 구분하여 전자는 ‘계급 그 자체’라고 하고 후자는 ‘그 자체 때문의 계급’이라 했다.<sup>13)</sup>

이제 ‘지식계급’ 문제를 짚어보자. 지식인은 하나의 계급을 구성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는 지식인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을까.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진행노선과 조건, 그리고 전반적 결과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대중보다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사람들, 즉 지식인들의 결정적 역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지식인에 대해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은 “부르주아지의 일부분, 특히 역사적 운동 전체를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부르주아 이론가들의 일부분이 프롤레타리아 편으로 넘어 온다.”는 것뿐이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잠에서 깨어나고 자신의 위대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획득하게 되는 실제적

12) 권생, 「계급론」, 『조선지광』 80호, 1928, 31쪽.

13) 권생, 「계급론」, 『조선지광』 80호, 1928, 33쪽.

인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저작 가운데 그러한 종류의 언급에 가장 가까운 것이 1848~1851년 동안 프랑스의 노동계급의 경험에 대한 역사 논문이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과 『브뤼메르 18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학습양식은 실천적이고 감각적이다. 그들의 실천적 투쟁 경험은 계급발전 과정이며 의식의 성숙과정이다.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자각하는 과정은 지적 선구자들의 이론적 예견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실천과정으로 보인다.<sup>14)</sup> “지식인들의 지배와 노동자들의 복종”이라는 칼 카우츠키 류의 설정에서부터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론, 즉 ‘노동자-지식인들(worker-intellectuals)’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인이라는 범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모순적인 개념이었다.<sup>15)</sup> 크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지식인이란 운동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어가는 어떤 집단이었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을까. 지식인을 계급 차원에서 바라보려면, ‘인텔리겐치아’라는 신어(新語)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인텔리겐치아 개념을 설명한 글 가운데 필명 不知菴이 1925년에 『개벽』에 쓴 글이 가장 상세하다.

인텔리겐치아는 보통 지식계급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보면 ‘유식 무산자’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원래 인텔리겐치아 말을 쓴 것은 러시아요 그래서 인텔리겐치아가 주목할 만한 사회적 현상으로 출현한 것은 1860년대였는데, 당시 그는 문학상 작품의 특수한 성격자로서 또 사회운동 상의 특수한 의의를 가진 지식 있는 무산자의 일 집단이었던 까닭이다.<sup>16)</sup>

14) 날 하딩, 『러시아 맑스주의』, 거름, 1987, 21~24쪽.

15) 이구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있어서 유기적 지식인의 이중적 성격」,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0호, 1998, 180~185쪽.

16) 不知菴, 「인텔리겐치아, 사회운동과 지식계급」, 『개벽』 59호, 1925, 8쪽.

不知菴이 쓴 글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지식인론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不知菴은 인텔리겐치아를 ‘유식 무산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도,<sup>17)</sup>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여러 이견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자. 첫째, 인텔리겐치아는 결국 부르주아지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둘째, 인텔리겐치아는 지력(智力)을 팔아서 생존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똑같은 존재다. 셋째, 인텔리겐치아는 곧 마르크스주의자를 일컫는 말이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곧 마르크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텔리겐치아를 지력 노동자라는 ‘특수한 계급’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sup>18)</sup> 어찌 되었든 不知菴은 인텔리겐치아가 “사실상 무산계급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중간성의 기분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결국은 부르주아지 또는 프롤레타리아라 진영에 속할 지식계급을 ① 비평적 지식계급 ② 반동적 지식계급 ③ 부르주아적 지식계급 ④ 중간적 지식계급 ⑤ 허무적 지식계급 ⑥ 소부르주아적 지식계급 ⑦ 무산 계급적 지식계급으로 나누었다.<sup>19)</sup>

여러 매체에서는 “인텔리겐치아란 곧 지식계급”이라고 설명하면서,<sup>20)</sup> 한 계급이 아니라 “직접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지적, 사무적 노무(勞務)에 복(服)하는 자”라고 규정 했다.<sup>21)</sup> 그러나 인텔리겐치아 일반과 특수한 의미의 인텔리겐치아를 구분하기도 한다. 다음 글이 그 보기이다.

17) 유산계급과 지식계급 사이의 사회경제적 윤리적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이해령, 「지식인의 자기정의와 ‘계급’」, 상허학회,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2008, 124~126쪽 참조.

18) 不知菴, 「인텔리겐치아, 사회운동과 지식계급」, 『개벽』 59호, 1925, 15쪽.

19) 不知菴, 「인텔리겐치아, 사회운동과 지식계급」, 『개벽』 59호, 1925, 17~18쪽. 1930년대 소설 가운데 다수가 ‘허무적 지식인’의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 주인공을 설정하고 있다(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21쪽.)

20) 「新語放送局」, 『가톨릭青年』 1, 1933. 58쪽; K.H.H, 「流行語辭典」, 『實生活』 3권 1호, 1932, 52쪽.

21) 「모던語」, 『新東亞』 5권 10호, 1935, 32쪽.

대학생 대학출신 등 지식계급(知識階級)을 일러 인텔리겐치아라고 한다. …… 이 말은 근본 러시아로부터 나온 말로 노동운동계에서 부르는 인텔리겐치아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 노동운동에 관계한 자를 이른다.<sup>22)</sup>

본디 인텔리겐치아는 19세기 후반부와 20세기 초의 러시아와 폴란드의 특정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었다. 그 뒤 그 단어는 어느 정도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sup>23)</sup> 위에 인용한 글을 보면, 인텔리겐치아를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 쓸 때는 지식인인과는 다른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롬펜 인텔리’의 용례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텔리겐치아와 지식인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썼다.

인텔리겐치아 또는 지식인은 어떤 계급인가. 그럼시에 따르면, 지식인을 독립적인 사회변수로 보는 것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인을 정의할 때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4)</sup> 1920년대 지식인도 자기 스스로 계급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인텔리겐치아의 임무를 분명하게 인식했다. 지식인이 민중 계몽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운동에 관련된 인텔리겐치아’가 될 것인가. 그에 따라 민족적 문화주의자와 계급적 사회주의자로 나뉘었다.

1920년대 중반이면 ‘지식계급의 중간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형성되었다. 『동아일보』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민중운동 즉 사회운동 방면에서 보면 지식계급은 유산계급의 주구(走狗)노릇을 하는 자라 하여 차(次)를 배척한다. 그와 반대로 유산계급에서는 무산자의 선동자라고 미워하며 더욱이 총독부 측에서는 차(次)를 위협 물시 하며 방해물시 하여 고압과 감시를 엄중히 한다. 형설의 공부를 쌓

22) 玄礎, 「新人間辭典」, 『新人間』 35호, 1929, 31쪽.

23) 김현경, 「민중에 대한 빛, 브나로드 운동의 재조명」, 『인문과 사회』 16권 3호, 2008, 54쪽.

24) 강수택, 「근대, 탈근대, 지식인」, 『한국사학회』 제34집, 2000, 510쪽.

아가지고 이와 같이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되었으니 어려운 것은 지식계급의 처신이요 생활인 감이 있다.<sup>25)</sup>

### Ⅲ. 공황기의 변혁론과 계급론

‘12월테제’는 조선 사회주의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다.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이 전위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의”였다. 코민테른은 ‘12월테제’를 통해 조선 혁명에 영향을 주고, 그들 나름대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12월테제’는 조선 사회주의자들에게 하나의 강령이 되었다.

‘12월테제’에 따르면, 조선은 전형적인 식민지다. 일제는 군대와 경찰, 그리고 관료기구를 갖추어 놓고 온갖 탄압을 퍼붓는다. 일제는 조선이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와 독립적으로 생산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앗아 갔다. 조선 경제의 주요부문은 모두 일본 금융자본의 손아귀에 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에 원료를 공급하고 일본 상품에 시장을 제공하는 농업배후지일 따름이다. 일제는 경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조세·관세·소비세·전매이윤 등 갖가지 수단으로 조선의 재화를 짜낸다.

식민지 조선에서 상품·화폐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지만, 경작관계는 대체로 전자본제의 모습을 유지한다. 소작인들은 현물지대를 내며 지주와 반봉건적인 관계를 맺고 노예처럼 착취당한다. 자작농은 조세·고리대·협잡·도량형·사기 등으로 착취당한다. 조선 인구 가운데 대부분은 농민이다. 혁명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없다. 따라서 조선 혁명은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봉건제도에도 반대하는 토지혁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 혁명의 성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이다. 다른 모든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프롤레타리아는 모든 계급 가운데

25) “지식계급이여 가두에 서라”, <동아일보>, 1925년 8월 19일, 1쪽.

가장 견실한 반제국주의계급이다. 노동자계급은 공장노동자가 늘고 조직으로 묶이면서 혁명운동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을 식민지 반봉건사회라고 규정한 ‘12월테제’는 다가올 혁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토지혁명을 하지 않고는 민족해방투쟁도 승리할 수 없다. 민족해방투쟁과 토지에 대한 투쟁을 거의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1919년 혁명운동은 나약했고 마침내 실패했다. 제국주의 굴레에 대한 승리는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과 노농민주독재의 수립(소비에트 형태로)을 전제로 하며 그를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한다.<sup>26)</sup>

같은 글 안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말하기도 하고, ‘노동자 농민의 민주독재’를 말하기도 한다. 언뜻 보아 모순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와 농민이 앞장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철저하게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소비에트 형태’가 무엇인가였다. 일부 조선 사회주의자들은 소비에트 형태의 노농민주독재 수립을 “자본주의를 뒤엎고 소비에트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혁명을 위한 세력배치에서 노동자가 가장 중요한 계급이었다. ‘12월테제’는 말한다.

조선의 전 계급 중 프롤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투사이다. 노동계급(첫째로 공장노동자)이 증대하고 조직됨에 따라 해방 임무도 증대하고 주의운동의 발달상 확고한 기초가 형성되어 농업노동자와 도시소부르주아 대중은 혁명의 원동력을 준다.<sup>27)</sup>

---

26) 최규진, 「코민테른 6차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6. 67~68쪽.

27)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12월테제」, 이반송·김정명 편저, 한대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208쪽.

이처럼 노동자 계급을 사회변동의 으뜸세력으로 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음 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세계관 사회관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 마르크스주의요 사상이다. 노동자의 감정을 감정하며 노동자의 관찰을 관찰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다. 마르크스주의에 철학적 그 무엇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 노동자 계급을 통하여서의 철학일 것이다. …… 모든 철학과 학문이 그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할 때에는 일문(一文)의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또는 의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변증법적 통일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 세계를 변혁할 자는 오직 노동자 이외에는 없다.<sup>28)</sup>

그렇다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계급은 변혁운동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 일찍이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숙제였던 농민문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을까. ‘12월테제’나 사회주의진영의 인식 속에서 농민이란 “여러 층을 내포하는 끊임없이 분해되는 계급이지만 조선혁명의 현 단계에서 농민 전체를 혁명세력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sup>29)</sup>고 생각했다. 지주는 혁명세력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문제는 부농이다. 대체로 부농을 제외한 채 “자작농의 일부, 소작농과 소작 겸 자작농 즉 근로농민층”을 노동자와 함께 할 범주로 보았다.

그러나 천도교 등 ‘개량적 농민운동’ 진영에서는 농민의 위상을 달리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농민이란 문맹률이 높고 봉건적 노예근성에 젖어 있는 등 ‘신경 마비된 정신병자’와 같은 상태여서 물질적 개선과 정신 개조를 이루어야 할 대상이었다.<sup>30)</sup> 사회주의 진영의 경우, 농민을 혁명세력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의 지도하에서만 자신의 해방을 달

28) 陳圖岩, 「맑스주의와 노동자계급」, 『학지광』 제29호, 1930, 17~24쪽.

29) 사공표, 「조선의 정세와 조선 공산주의자의 당면 임무」, 『레닌주의』 제1호, 1929, 배성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연구』, 돌베개, 1987, 94쪽.

30) 金炳淳, 「농민운동의 범주」, 『농민』 제3권 제11호, 1933, 2~8쪽.

성할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는 농민과 동맹해야만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31)</sup> 전체 운동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까. 다음 글에서 보듯이,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 답이었다.

조선의 민족운동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 문제는 그다지 강조되어 오지 아니하였다. 1927년경에 간혹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가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 혹은 조직체내의 간부를 탈취하는 것으로써 헤게모니의 전취로 인식하였거나 외교에 의하여 개인의 지위를 保持하고 있는 것을 헤게모니의 해결로 보는 등 그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였다. 그러면 대체 헤게모니란 무엇을 말함인가. ……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자성의 강대화를 위한 투쟁과 그 조직의 강대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투쟁과정에서 민족부르주아지의 영향 하에 있는 민족적 혁명적 대중 층을 자기 세력범위 내로 획득하는 것이다.<sup>32)</sup>

“민족혁명운동을 타협적인 민족개량주의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민족혁명운동을 강화한다.<sup>33)</sup>”는 ‘12월테제’의 인식을 거의 모든 사회주의자가 공유했다. 민족주의자와 협동했던 신간회를 어찌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1931년에 신간회는 해소되었지만, 사회주의자 모두가 곧바로 신간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개량주의자의 범주 설정이 달랐고 전술에서 차이도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12월테제’에서 밝힌 변혁노선을 강령처럼 따르고 있을 때, 송만이 쓴 「민족사회주의논강」이라는 ‘이단의 계급론’이 잡지에 실리면서 작은 파문이 생겼다. 그 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31) 「식민지 반식민 제국에서의 혁명운동에 관하여」, 이반송·김정명 편저, 한대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176쪽.

32) 진영철, 「조선운동의 신전망」, 『해성』 제1권 제7호, 1931, 7쪽.

33)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12월테제-」, 앞의 책, 210쪽.

사람은 남보다 낮으려는 욕망이 있다. 보다 낮이 慾이 진화의 원동력이다. 지위적 보다 낮이 慾이 貴慾이 되고 재산적 보다 낮이 慾이 富慾이 된다. 貴慾은 봉건사회를 건설하고 富慾은 자본사회를 건설한다.

소수 貴慾의 발달은 대중의 共貴慾을 알배고 소수 富慾의 발달은 대중의 共富慾을 알배다. 불란서 대혁명은 共貴慾의 産兒요 露西亞 대혁명은 共富慾의 産兒이다. 역사의 구호는 먼저 귀천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빈부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귀천의 평면을 밟고 이제 빈부의 평면을 밟아 오는 것은 대중문명의 역사적 步武이다. …… 계급투쟁의 목표는 共富고 민족투쟁의 목표는 各貴임을 알 것이다.<sup>34)</sup>

계급분석이 아주 낮설다.<sup>35)</sup> 사회주의자들은 이 주장을 거의 무시했지만, 몇 개의 반박 글도 있다. 송만이 독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첫째, 사회과학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외국 것을 직수입해다가 그대로 쓰는 놈들 다시 말하면 XX(공산·인용자)주의자들과는 자기를 구별하겠다는 그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조선운동에는 조선 자신의 이론이 있어야 하고, 외국 것을 그대로 통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변화’된 사회주의를 창조했다는 주장이다.<sup>36)</sup> 그 밖에 귀와 부를 대립하고 있는 「민족사회주의논강」이란 결국 참정권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sup>37)</sup>

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변혁론 자체를 거부하는 지식인도 적지 않았다. 친일과 반공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공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인식도 있었다.

34) 송만, 「민족사회주의논강」, 『동광』 24호, 1931, 2~3쪽.

35) 허민은 「민족사회주의논강」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상호 착종된 상태에서 구현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다(허민, 「적대와 연대: 1930년대 ‘활자전선(活字戰線)’의 구축과 복수의 사회주의」, 『민족문학사연구』 53호, 2013, 78쪽.)

36) 일기자, 「비판의 비판, 민족사회주의논강 비판」, 『비판』 6호, 1931, 64쪽.

37) 김창신, “민족사회주의논강 필자 송만 씨에게 질문함”, <동아일보>, 1931년 11월 2일, 4쪽.

과학적 운동방법을 발견한 것은 마르크스다. 마르크스가 경제조건에 의한 계급투쟁을 말한 것은 과연 현실을 포착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그가 운동형태 구성을 모 선언서에 표시하였으니 만국 노동자 단결을 말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규범이론에 흘렀는가 한다. 그가 지역 지역의 사정을 과학적으로 관찰됨에 등한하였고 노동자를 단위로 하여 세계혁명을 동일한 시각에 공과를 들려한 것이 규범적 이론이라 하겠다.<sup>38)</sup>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도 ‘공식적·도식적’ 이론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다음 글이 그것을 보여준다.

조선운동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동경과 직접적 연쇄관계를 갖고 있는 이만큼 사회운동 그것도 그곳 운동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일부 학생층은 실제 투쟁에서 마르크스적 의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동경에서 들어오는 무산 계급운동의 이론 등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때문에 공식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향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전환기를 변하여서는 더욱 더 이러한 공식적 행위가 성행·유행되는 것이 불만이다.<sup>39)</sup>

## IV. 공황기 지식계급론과 자아 인식

### 1. 지식인 계급론

사회주의 도입기인 1920년대부터 계급론에서 지식인이 문제가 되었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유동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인을 계급 범주로 묶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경제적 기초와 계급의식이

38) 金炳淳, 「규범운동에서 과학적 운동으로」, 『농민』 제2권 제6호, 1931, 2~5쪽.

39) 윤형식, 「조선 사회운동의 개관」, 『혜성』 1권 9호, 1931, 57~58쪽. 『혜성』 같은 호의 다른 글에서는 러시아의 프라우다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적혀있다(위의 글, 37쪽.)

결(缺)한 집단을 계급이라 할 수 없으니, 따라서 지식계급이란 말은 오착된 것이다.”<sup>40)</sup>는 주장에서 보듯이, 지식인을 하나의 계급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결국 지식인이란 사고와 실천에 따라 어느 한 계급에 편입될 그런 위치였다.

‘12월테제’는 지식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당을 소부르주아지와 지식계급으로 조직하고 노동자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한 점이 현재까지 조선공산주의의 영구적 위기를 낳게 한 주요한 원인이었다.”<sup>41)</sup>는 지적이 그것을 보여준다. 다음 글에서 보듯이,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의 인식도 그와 비슷했다.

조선 공산주의자의 대부분은 인텔리겐치아였다. 조선 공산주의자 대오의 최대 약점이 이곳으로부터 생겨났다. 이 계급은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부단히 양대 방향으로 분열한다. 한 방향은 좌경이니 이것에 속하는 자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투입하게 되고, 다른 한 방향은 우경이니 이것에 속하는 자는 부르주아지와 융합하여 개량주의로 나아간다. 그들 가운데에는 최근 농민 획득에 대한 의도가 생겼는데, ‘협동조합운동’이 그것이다. 조선 인텔리겐치아의 대다수가 농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sup>42)</sup>

위 글에서는 부유한 농촌 가정에서 성장한 조선 지식인이 노동자와 거리를 두고 농민층을 획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천도교 잡지 『농민』도 다음과 같이 지식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의 운동을 농민 노동자에게 전임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있어서는 너무도 대중을 무시하였다. …… 금후의 우리 운동체는 소부르주아와 지식분자의 전횡과 과오에 대하여 대중의 힘으로 여계 방축할 만한 대중

40) 정백, 「지식계급의 미망」 『신생활』 3호, 1922, 18쪽.

41)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12월테제-」, 앞의 책, 211쪽.

42) 사공표, 「조선의 정세와 조선 공산주의자의 당면 임무」, 앞의 책, 91쪽.

층에 뿌리를 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43)</sup>

공황기에 인텔리겐치아라는 말이 다시 쟁점이 되었다. 인텔리겐치아를 ‘중간계급’으로 보는 경우,<sup>44)</sup> 인텔리겐치아를 지식인과 같은 말로 해석해서 “지식을 팔아서 생활한다는 사람으로 근육노동자와 구별되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sup>45)</sup> 인텔리겐치아 내부의 층위를 나누어 보는 경우, 자본주의 체제의 가운데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경우<sup>46)</sup> 등이 있었다. 먼저 중간계급론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사전적 정의를 보자.

중간계급이라는 것은 경제적 지위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두 계급 가운데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총칭한 것이다. 중간계급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상위(相違)되는 점도 있지만, 대체로는 지식계급 및 수공업자, 소상공 등이 이 계급에 속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지식계급은 보통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아 순수한 근육노동을 하지 못하고 크고 적고 간에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것이다. 즉 독립자유직업자 매월 월급 타는 사람들이 되겠다.<sup>47)</sup>

이 주장에 따르면, 지식계급은 중간계급이다.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경우의 ‘계급’이란 생활정도와 사회상 지위에서 비롯된 구별이다. 그러므로 중간계급을 구성한 사람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 같이 단순한 동질적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이질적 존재다.<sup>48)</sup> 이 이질적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계급 배치가 달라

43) 金炳淳, 「피XX계급의 운동 방략은 엇더케 할 것인가」, 『농민』 제2권 제8호, 1931, 2~8쪽.

44) 성재, 「중간계급考」, 『현대평론』 제1권 제2호, 1927, 67~76쪽.

45) 追鷄鷺子, 「인텔리는 어데로?」, 『신조선』 1934년 9월호, 24쪽.

46) 金亨俊, 「조선 현실과 인텔리겐차」, 『제1선』 제2권 제6호, 1932, 52~55쪽.

47) 편집부, 「新술어사전 - 중간계급 및 중간계급운동」, 『대중공론』 제2권 제3호, 1930, 60쪽.

48) 성재, 「중간계급考」, 『현대평론』 제1권 제2호, 1927, 68쪽.

질 것이다.

지식계급을 부르주아 인텔리층, 소부르주아 인텔리층, 프롤레타리아 인텔리층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경우 소부르주아 인텔리겐치아가 문제가 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은 하루 종일 노동하는 노동자의 머리 가운데서나 망치 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인텔리겐치아 특히 소부르주아 인텔리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공황기인 지금은 “갈 곳이란 안전지대로 그의 발 길을 옮기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다”면서 소부르주아지의 퇴행을 지적했다.<sup>49)</sup> “인텔리도 원칙으로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매각하는 임(賃銀)노예에 지나지 않는다.”<sup>50)</sup> 라고 규정 한다면, 인텔리가 혁명진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 의의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국면”<sup>51)</sup>이라고 판단했다면, 변혁론에서 지식인의 위상을 낮추어 보는 것이다.

## 2. 지식인의 자아 인식

공황기에 접어들면서 지식인의 위치는 크게 흔들렸다. 나라 안팎의 정세는 불안정했고, 지식인의 취업난이 더욱 심해졌다. 지식인과 노동자의 처지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현대 세계에서 지식계급은 행복한 노예가 되거나 불행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인텔리겐치아의 성원을 프롤레타리아에 접근한 층으로 전락시킨다.”는 판단이 그것이다.<sup>52)</sup> 공황을 맞이하여 조선에서도 ‘인텔리겐치아 상품’을 받아들일 시장이 부족하여 실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고, “인텔리

49) 追鷄鷺子, 「인텔리는 어디로?」, 『신조선』 1934년 9월호, 24~26쪽.

50) 崔鎭元, 「현대 인텔리겐차론」, 『전선』 제1권 제2호, 1933, 36~46쪽.

51) 姜華, 「현대 인텔리겐차론」, 『신홍조선』 제3호, 1934, 28~29쪽.

52) 片石村, 「인텔리의 장래, 그 위기와 분화과정에 관한 소연구(5)」, <조선일보>, 1931년 5월 22일, 4쪽.

겐치아는 파시즘, 개량주의, 노동자의식을 가진 실천운동 진영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sup>53)</sup> 이와 비슷한 답론은 아주 많다.

1935년에 박치우는 지식이 근대적 상품으로 등장했을 때 ‘신흥 시민층’에서 지적 수요가 아주 커서 ‘인텔리겐치아 황금시대’를 열었지만, 이제 ‘지적 노동군(勞動群)’은 생산과잉 상태에 빠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식인이 한낱 노동자로서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선 절망적인 존재라고 했다.<sup>54)</sup>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2대 계급 진영만이 존재할 따름”이라면, 인텔리는 어디에 속할까. 최진원은 그들을 초계급적 또는 독립적 계급이라고 보는 것은 추정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르주아지나 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어느 한 계급으로 분화할 수밖에 없는,<sup>55)</sup> ‘중간적 유동층’<sup>56)</sup>으로 보았다. 최진원은 인텔리가 “계급적 색소에 감염되고 계급적 관념에 세련되면서 분화한다.”고 했다.<sup>57)</sup> 인텔리가 부르주아지에 ‘감염’되거나 프롤레타리아 사상으로 ‘세련’되어 지면서 언젠가 두 계급으로 나뉘는 것으로 읽힌다.

1930년 『별건곤』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인텔리겐치아를 지식계급보다는 지식군(知識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냈다.<sup>58)</sup> 인텔리겐치아를 계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군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현 제도가 사역(使役)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와 부르주아 어용학자다. 이들은 아무리 자궁(自矜)하여도 부르주아 임금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숙명처럼 따라붙는 소부르주아 이데

53) 金亨俊, 「조선 현실과 인테리겐차」, 『제1선』 제2권 제6호, 1932, 52~55쪽.

54) 박치우, “인테리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상)”, <동아일보>, 1935년 6월 12일, 3쪽.

55) 崔鎭元, “인테리겐차론(2)”, <조선일보>, 1932년 2월 16일, 4쪽.

56) 崔鎭元, “인테리겐차론(1)”, <조선일보>, 1932년 2월 13일, 4쪽.

57) 崔鎭元, “인테리겐차론(2)”, <조선일보>, 1932년 2월 16일, 4쪽.

58) 인텔리겐치아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 계급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姜華, 「현대 인테리겐차론」, 『신흥조선』 제3호, 1934, 28~29쪽.)

올로기를 벗어나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 계급 전선에 들어서서 투쟁을 하고 있는 ‘동반자’다. 그들의 숫자는 아주 적다. 셋째, 앞의 두 진영의 중간,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 세계관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동반자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우물거리는 방관자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에 비참한 고민을 새겨 넣은” 자들이다, 그들 대부분이 강단사회주의자이거나 개량주의에서 편히 쉬고 있다. 그나마 숫자도 적다. 위의 분류 가운데 봉급생활자 일부가 민간사업 측에 붙어 “지적(知的) 매음(賈淫)을 하면서 동반자의 가면을 쓰고 위조(偽造) 민족주의를 민중에게 염가 판매하면서 횡행천하(橫行天下)하여 음흉한 자유주의의 세력을 퍼뜨리고 있다.”는 진단도 했다.<sup>59)</sup>

자본주의 초기의 ‘인텔리겐차의 황금시대’가 있었지만,<sup>60)</sup> 자본주의 위기 3기를 맞이하여 인텔리들의 위기가 왔다고 본 것에는 거의 모든 지식인이 뜻을 같이했다. 그들은 “인텔리의 위기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노동 즉 자본주의 문화의 위기”라고 생각했다.<sup>61)</sup>

공황기에 “인텔리겐치아는 통일적 계급 이해를 가진 사회층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분열과 대립 사이에서 배회하면서 중국에는 한 계급 진영에 종속될 계급이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최진원은 그들을 ① 진보적인 인텔리겐치아 ② 귀족적인 인텔리겐치아 ③ 하급 인텔리겐치아 ④ 중간 인텔리겐치아로 나누었다. 검열 때문에 삭제되어 진보적 인텔리겐치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혁명적 지식인을 일컫는다. 귀족적인 인텔리겐치아란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자들이며 부르주아지들의 대변자다. 하급 인텔리겐치아란 노동귀족과는 거리가 멀고 “속된 말로 찌꺼기 층 인텔리겐치아”다. 최진원은 일반적으로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면

59) 「時相漫話」, 『별건곤』 30호, 1930, 74~75쪽.

60) 崔鎭元, 「현대 인텔리겐차론」, 『전선』 제1권 제2호, 1933, 36쪽.

61) 片石村, “인텔리의 장래, 그 위기와 분화과정에 관한 소연구(5)”, <조선일보>, 1931년 5월 22일, 4쪽. ; 崔鎭元, 「현대 인텔리겐차론」, 『전선』 제1권 제2호, 1933, 36쪽.

‘중간 인텔리겐치아’를 일컫는다고 했다. 이 소부르주아는 온갖 기회주의 행동, 자포자기의 행동, 향락주의를 서슴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자와 사회개량주의자도 소부르주아지의 범주에 포함된다.<sup>62)</sup> 이처럼 소부르주아 지식인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주장도 있지만,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운동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다음 글이 그 보기이다.

금일의 인텔리겐치아는 차츰 그 분야가 갈리려고 하는 듯싶다. 고급관리, 기술사, 의사 기타 어용학자들은 아주 전락 과정에 들어선 자본사회를 보수함으로써 그 자체의 권익을 유지하려는 파시즘으로 적극적으로 전향되고 있으며, 실업에 부대끼고 또 앞으로 실업군의 운명을 눈앞에 그리면서 있는 인텔리층 또는 비교적 자유의 생활을 하는 또는 객관적 입장에 선다는 저술가들은 그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하층 계급 진영으로 전향되고 있으며, 그 외에 아직도 인텔리 중에서 비교적 행운을 가졌다는 중류 봉급층 또는 그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하층 계급에도 뛰어들 용기를 결한 기가 약한 층들은 개량적 기회주의적 행동을 아직 갖고 있는 듯싶다. 그리하여 근간에 와서 그들 인텔리겐치아가 하층 계급의 의식을 갖고 그 운동으로 전향하는 수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듯싶다.<sup>63)</sup>

이제 학생과 지식인의 관계, 또는 전체 운동에서 학생운동의 위상을 짚어볼 차례다. “오늘날의 모든 학교는 인텔리겐치아라는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다.”<sup>64)</sup>는 주장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배어있다. 또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학생계층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62) 崔鎭元, 앞의 글, 36~46쪽; 崔鎭元, “인텔리겐차론(11)”, <조선일보>, 1932년 3월 3일, 4쪽.

63) 金亨俊, 「조선 현실과 인텔리겐차」, 『제1선』 제2권 제6호, 1932, 54~55쪽.

64) 金亨俊, 「조선 현실과 인텔리겐차」, 『제1선』 제2권 제6호, 1932, 52~55쪽.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조선 학생을 조선의 생명 같이 알면 ..... 그것은 학생 그 자체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오류이다. 학생의 대다수는 소부르주아층이며 미성품(未成品)이다. .... 유형색의 분자들이 결합한 것이 학생층이다. .... 그러므로 학생층 전체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XX군이 못되며 따라서 학생 전체의 학생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XX운동이 되지 못할 것이다.<sup>65)</sup>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난 뒤부터 사회주의진영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중을 끌어드리려고 반제운동을 강조했다. 반제운동에서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금 뒷날의 이야기지만, 이재유는 반제운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학생을 “과학적이고 정의심이 있다.”고 판단했다.<sup>66)</sup> 그러나 이재유마저도 당재건과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 운동을 포괄하는 전체 운동에 복무해야 할 학생운동이었지, 학생운동 그 자체만을 앞세우지는 않았다. 1930년대 변혁론인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민주독재론’에 따라 여러 계층이 노동자·농민 계급 속으로 재편되어야 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겼다. 1934년 제2차 카프(KAPF)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1년 반 동안 전주 형무소에 수감된 경력이 있는 백철이 그러했다. 그는 1935년에 『동아일보』에 출감 소감문인 「비애의 성사(城舍)」를 써서 “마르크스주의자의 태도를 포기”하면서 전향을 공식 표명했다.<sup>67)</sup> 그가 보기에 1930년대 초·중반은 “계급론이 명확해지면서 지식인이 중간계급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백철은 그러한 ‘과학적 태도’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계급론과 지식인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sup>68)</sup> 백철은 부르주아 계급과

65) 韓一道, 「조선학생론 - 과연 조선학생은 조선의 생명인가!」, 『이러타』 제1권 제3호, 1931, 75~76쪽.

66)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386쪽.

67) 백철, “비애의 성사”, <동아일보>, 1935년 12월 22일~27일.

68) 백철이 지난날 가졌던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김철은 ‘주체의 부재’를 지적한다. 비평계에서 좌파 그룹의 선두를 달리던 백철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식민지 조선이 부르주아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만을 설정하고 있었을 따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각각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으로 고쳐 부르기도 했다.<sup>69)</sup> 그리고는 “지식인이 상층을 버리고 하층의 대(大) 계급을 섬기게 된 것은 명예 있는 행동인 듯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대(事大)의 굴욕적인 정신이다.”고 주장했다.<sup>70)</sup> 백철은 지식인 스스로 “지식계급은 소시민 근성의 인간이요 중간 동요층이요 정세에 따라서 좌에도 붙고 우에도 붙는 ‘박쥐’와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조적(自嘲的) 태도며 자포자기 일 따름이라고 했다.<sup>71)</sup> 백철은 “지식인이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과 같은 세계에서 영토를 다투 계급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세계 다른 현실의 인간이다.”<sup>72)</sup>고 주장했다. ‘인간탐구’를 깃발로 내세운 그에게 ‘지식인간’이란 곧 ‘문화인간’이었다.<sup>73)</sup> 1937년 중일전쟁 뒤에 일본제국주의가 강제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백철은 “시세를 거스르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수리(受理)<sup>74)</sup>하면서 지식계급이 정치나 경제가 아닌 문화영역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식인의 계급 위치를 다시 규정하는 가운데 친일의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다.

---

름이고 주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 보기를 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지식 계급의 상황과 역할 문제라든가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역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김철, 『친일문학론: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이광수와 백철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8권1호, 1995, 20쪽).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백철만의 한계는 아니었다.

- 69) 白鐵, “문화주의자가 초한 현대지식인간론(1)”, <동아일보>, 1937년 10월 13일, 4쪽.  
 70) 白鐵, “문화주의자가 초한 현대지식인간론(2)”, <동아일보> 1937년 10월 14일, 4쪽.  
 71) 白鐵, “문화주의자가 초한 현대지식인간론(1)”, <동아일보>, 1937년 10월 13일, 4쪽.  
 72) 白鐵, “문화주의자가 초한 현대지식인간론(완)”, <동아일보> 1937년 10월 17일, 4쪽.  
 73) 白鐵, “문화주의자가 초한 현대지식인간론(2)”, <동아일보> 1937년 10월 14일, 4쪽.  
 74) 白鐵, “현대지식계급론(1)”, <동아일보>, 1938년 7월 1일, 3쪽.

## V. 맺음말

조선에 몰아닥친 공황은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공황의 효과로 지식인의 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음 두 글은 지식인의 위기와 타락을 걱정하고 있다.

사회는 자체의 상층구조의 지지의 필요로 그들을 몰아 지식군(知識群)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생활(경제)보장을 철저히 하여주지 아니 한다. 산업예비군과 같이 문화예비군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얻은바 지식을 변민의 무기로 사용한다.<sup>75)</sup>

오락기관(짜스, 레뷰, 카페)의 발달과 ‘뿌루쵸와’ 계급의 사치와는 본래는 무슨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계급을 영구적으로 ‘롬펜 인테리켄차’로 방치하려는 의식에서 오락기관의 발달을 촉(促)한 것이다.<sup>76)</sup>

공황기의 지식인은 ‘메이크업한 근대’를 향유하는 ‘핑크의 지식인’이거나 ‘허무적 지식계급’ 아니면, ‘레드의 지식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밟는다.<sup>77)</sup> 전쟁의 시기가 오면서 지식인은 자기 존재조건을 다시 시험 받게 된다. 향락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지식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레드의 지식인’도 무언가 달라져야 했다. “가라 공장으로 광산으로 농촌으로!”라는 말에는 책상에서 생산 현장으로 지식인의 존재 조건을 옮기라는

75) 『時相漫話』, 『별건곤』 29호, 1930, 28쪽.

76) 姜華, 「현대 인테리켄차론」, 『신흥조선』 제3호, 1934, 28~29쪽.

77)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에 따르면, 1930년대 초 일본 부르주아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간자(銀座) 거리를 배회하며 ‘에로, 그로, 넌센스’에 빠져 성적인인 쾌락을 추구하는 ‘핑크’가 되든지, 진지하게 사회혁명을 실천하는 ‘마르크스 보이’, ‘앵겔스 걸’이 되어 ‘아카(red)’가 되는 것 둘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채석진, 「제국의 감각 :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연구』 5호, 2005, 46쪽.)

뜻도 있지만, 지식인의 자기 정체성을 재조정하라는 것이었다.<sup>78)</sup> 사회운동이 발흥하던 1920년대 전반기에 ‘전위적·계몽적 지식인 상(像)’이 강조됐던 것과는 달리, 1930년대 초에 이르면 ‘동반자적 지식인 상(像)’이 새롭게 부각되었다.<sup>79)</sup>

혁명적 지식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조선 노동계급의 미성숙을 매우는 장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계급존재보다 ‘정치적 실천주의’가 그들에게 주요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생산관계에서 계급의 위치를 확정했다 해서 그것이 곧 계급의 집합적 정체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급으로 구성해야만 현실 속에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농민의 계급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이것이 혁명적 지식인이 품었던 고민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당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당재건운동을 했고, ‘투쟁을 통한 조직, 조직을 통한 투쟁’을 깃발로 내걸고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운동으로 뛰어들었다. 그 밖의 식민지 지식인 군상은 1930년대 ‘혁명과 전쟁의 시기’를 그들 나름대로 살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불안, 고민, 울분, 비굴, 우울 등의 감정구조와 지식인의 내면세계 등은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된다.

『동아일보』는 1934년 이후 일본 문단에서 벌어진 지식계급론을 소개한 글을 실었다. 그 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34년 후반기부터 ‘지식계급론’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무산계급운동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그 운동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진보적 태도인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사회정세가 바뀌고 “무산계급운동이 퇴조함에 따라 지식계급도 사회적 중압 때문에

78) 허민, 「적대와 연대: 1930년대 ‘활자전선(活字戰線)’의 구축과 복수의 사회주의」, 『민족문학사연구』 53호, 민족문학사학회, 2013, 89쪽.

79) 조형렬, 「1930년대 조선의 ‘역사과학’에 대한 학술문화운동론적 분석」,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5, 26쪽. 1920년대 지식인 문제를 다룬 글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최승만, 「식자계급의 각성을 요함」, 『학지평』, 1919; 정백, 「지식계급의 迷妄」, 『신생활』, 1922; 부지암, 「인텔리겐치아-사회운동과 지식계급」, 『개벽』, 1925; 春子, 「소위 지식계급의 신운동」, 『개벽』, 1925; 김상운, 「인텔리겐치아는 어디로 가나」, 『신민』, 1930.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상실”하는 ‘지식계급의 곤혹(困惑)’ 현상이 발생했다. 그 ‘곤혹’에서 탈출하는 길은 무산계급과 연결하는 일, 반동세력을 구가(謳歌)하는 일, ‘진보성을 살려가는 일’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지식계급의 재출발’이 있다고 진단했다.<sup>80)</sup>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계급은 어떻게 재출발했던가. 이와 관련해서는 1930년대 후반 민족해방운동사, 전시 파시즘에 적극 협력했던 친일 지식인, 그리고 체제 안에서나마 작은 균열이라도 내려 했던 지식인 모두를 함께 살펴야 한다.

---

80) “일본문단의 중요논제 - 지식계급론 일별(상)”, <동아일보>, 1935년 3월 6일, 3쪽.

• 참고문헌

- 강수택, 「근대, 탈근대, 지식인」, 『한국사회학』 제34집, 2000, 507~529쪽.
- 김경일, 『이재유 :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 김철, 「친일문학론: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이광수와 백철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8권1호, 1995.
- 김현경, 「민중에 대한 빛, 브나로드 운동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16권 3호, 2008.
- 닐 하딩, 『러시아 맑스주의』, 거름, 1987.
- 배성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연구』, 돌베개, 1987.
- 이구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있어서 유기적 지식인의 이중적 성격」,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0호, 1998, 180~185쪽.
- 이만송·김정명 편저, 한대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 이혜령, 「지식인의 자기정의와 ‘계급」, 상허학회,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2008, 117~154쪽.
- 임경석, 「20세기 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신지식층의 대응- 사회주의 지식인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43, 2003, 1~25쪽.
-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 조형렬, 「1930년대 조선의 ‘역사과학’에 대한 학술문화운동론적 분석」,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5.
- 채석진, 「제국의 감각 :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연구』 5호, 2005, 43~87쪽.
- 최규진, 「코민테른 6차 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6.

허민, 「적대와 연대: 1930년대 ‘활자전선(活字戰線)’의 구축과 복수의 사회주의」, 『민족문화사연구』 53호, 2013, 73~110쪽.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2009, 37~54쪽.

## Theorizing the Intellectual Class by the Anti-colonial Movement in the Period of the Great Depression

Choi, Kyu-Jin\*

The 1920s was a turning point in the dimension of ideological history, in that socialism as ideology and movement began to exert a huge influence. Especially, interest in socialist ideology led to fresh emergence of class theory. The socialists attempted to theorize freshly the role and the task of the intellectuals in the course of constituting the theory of the anti-colonial revolution on the basis of the class axis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peasantry.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issue of the intellectuals in the terrain of the class theory.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e effect of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class theory, and the tension between the class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 In order to clarify how the intellectuals were understood in the dimension of the class theory in the colonial Korea, the focus should be on the way the newly-imported concept of the intelligentsia was understood.

This paper shows how the anti-colonial movement, especially the socialist intellectuals defined themselves and their status as intelligentsia within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in the period of the Great Depression. Not only did the Depression of the 1930s give huge economic damages to all the social strata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also exerted

---

\* Sungkyunkwan University

enormous impacts on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The intellectuals were very sensitive, and the Depression drove forth the rapid process of differentiation amongst intellectuals.

In the Depression era, the intellectuals were divided into subgroups, such as modernists, nihilists, and fellow companions of working class. These radical intellectuals as fellow travelers were forced to have their own identity adjusted to the new context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1920s. They tried to be workerist intellectuals, not intellectuals with white hands. In the course of this differentiation, the ideological struggle was waged against the reformist petit-bourgeois intellectuals. However, with harsh ideological repression by the Japanese imperial authority and the changing circumstances, the intellectuals had to cope with another round of ordeals.

Key words: Great Depression, class theory, intellectual class, intelligentsia, socialist movement

필자 E-Mail: ckjr@hanmail.net

투고일: 2016년 4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6년 5월 2일 /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3일